

군 성폭력 대응 실태연구: 관련 기사 빅 데이터 분석 중심

김영란^{*}, 이민선^{**}, 송현^{***}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 박사수료^{*},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 박사수료^{**},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sponse of Military Sexual Violence: Based on Big Data Analysis of Related Articles

Young-Ran Kim^{*}, Min-Sun Lee^{**}, Hyun Song^{***}

Senior Researcher, Ph.D. Candidate, Hanil University^{*}

Ph.D. Candida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Han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군의 성범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9년 2월부터 2022년 5월28일까지 뉴스에서 다룬 군 성범죄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군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뉴스 빅 데이터 전문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 (BIGKinds)를 활용하여 기사를 수집하였고, Textom 프로그램을 활용해 키워드를 대상으로 시기별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 의미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첫째,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건 관련 보도는 피해자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범죄에 대응하는 관련 당국의 미온적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 셋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나타났다.

주제어 군대, 군 성폭력, 피해자, 빅 데이터, 기사 분석

Abstract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articles related to military sex crimes covered in the news from February 2019 to May 28, 2022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from sexual crimes in the milita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reported in the media, articles were collected using BIGKinds, a news big data analysis system, and using the Textom program,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frequency analysis by period, word cloud,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s for keywor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technique.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ublic'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victims in reports related to sex crimes within the military. Second, the problem of the lukewarm system of the relevant authorities in responding to sex crimes was revealed. Third, there was a lack of support for victims of sex crimes.

Key Words Military, Military sexual violence, Victim, Big data, Articles analysis

Received 22 Sep 2023 Revised 11 Oct 2023

Accepted 13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Hyun Song
(Hanil University)

Email: hyun@hanil.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군은 대다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이어진 가부장적 조직문화로 인해 여전히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육군 법무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기소된 총 2,406건의 형사사건 중 성범죄(군 형법상 추행,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는 346건이 기소되었다. 이는 군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의 약 14.3%를 차지한다. 또한 군 내부 여성대상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분석결과, 2018년 기준으로 가해자는 장교(50%), 부사관(36%), 병(7%) 순이고, 피해자 78%가 초급간부(중·하사 54%, 중·소위24%)라는 보고 결과를 보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1]. 이렇듯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여군을 비롯한 군 근무인력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군 성폭력 실태에 대한 대응과 조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군 성폭력 관련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군의 성범죄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9년 2월부터 2022년 5월28일까지 뉴스에서 다룬 군 성범죄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발전적인 대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빅 데이터(Big Data)의 개념

빅 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칭한다. 데이터의 양이나 단위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11]. 빅 데이터에 대한 양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념 정리를 보면, ‘very large DB’, ‘extremely large DB’, ‘extreme data’, ‘total data’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양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해당된다[6].

빅 데이터를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규정하는 경우나,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라고 정의 하는 경우 또한 빅 데이터를 양적으로 정의하는 예이다[5]. 이와 달리 빅 데이터를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은 빅 데이터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가 활용되는 과학적·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내용을 추출하는 기술을 빅 데이터”라고 정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9]. 간단하게 종합하면, ‘빅 데이터’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속도도 매우 빠르며, 다양하고 이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의 총체를 말한다[4].

2.2 범죄 예방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범죄예방에서의 빅 데이터란 범죄자의 범법행위 등의 형사 사법절차에 이르는 모든 형사법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형사사법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4].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증주의 범죄학이 정립되면서 비로소 ‘예방’이나 ‘예측’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IT 기술의 발전에 높은 수준의 실질적 예측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예측 기반의 범죄예방 노력이 오늘날 빅 데이터 범죄예방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 수집기술과 정보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분석과 수집된 자료를 접목하여 치안 활동에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경찰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조, 미국은 특정 지역의 환경에 맞춘 치안 활동에 집중하여 분석에 더 많은 중점을 보였다. 이렇게 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예측적 경찰 활동(Predictive Policing)’, ‘스마트 경찰 활동(SMART Policing)’, ‘범죄와 교통안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D-DACTS: Data-Driven Approaches to Crime and Traffic Safety)’ 등 정보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경찰 활동 프로세스가 주목 받고 있다[8].

미국 뉴욕의 COMPSTAT는 범죄 데이터와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범죄 데이터는 FBI 범죄 통계 자료와 총기사건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10]. 이를 이용하여 경찰은 우범지역, 범죄의 특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영국 Kent주 경찰은 2013년 초 Predpol을 도입하면서 침입절도·노상폭력·자동차침입절도·사회적 무질서 행위에 대해 4개월 간 시범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범죄의 8.5%가 예측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분석관의 자체 예측 정확도 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12].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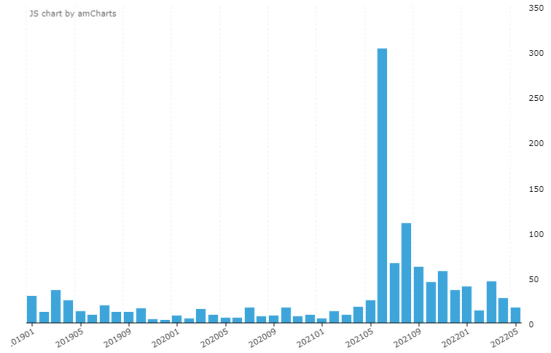
언론에 보도된 군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뉴스 빅 데이터 전문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기사를 수집하였고, "군대+성폭력"의 키워드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 뉴스에서 다룬 해당 키워드관련 사건 기사를 수집하였다. 일간지를 비롯한 전문지 방송통신 등 54개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총 1238건을 검색하였다. 이중 검색 제외 대상 설정 및 전처리를 거친 500건의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아가 Textom 프로그램을 활용해 키워드를 대상으로 시기별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 의미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2 자료분석

3.2.1 보도 기사량 분석

군대 성범죄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버즈량 분석은 [Fig. 1]과 같다. 군 성범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군의 성범죄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9년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사 중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는 2021년 전까지 최대 36건으로 낮은 보도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공군 중사 자살 사건을 기점으로 군의 성범죄 관련 기사가 급증하였고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7월)와 해당 사건 피해자의 가족의 인터뷰(8월)에도 일시적으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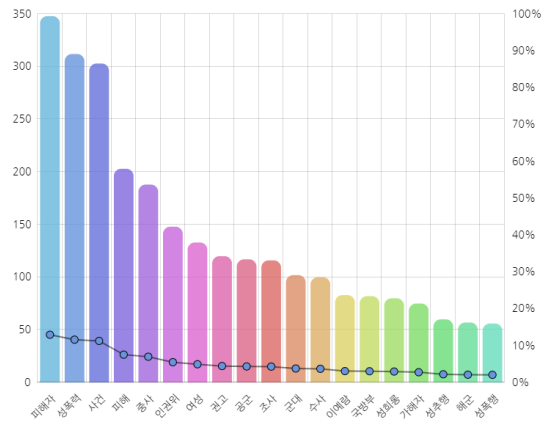
련 기사량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보도나 관련인의 사회적 행동 없이 군의 사건 실태가 대외적으로 기사화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군대 성범죄 키워드 보도 기사량 분석

3.2.2 수집 기사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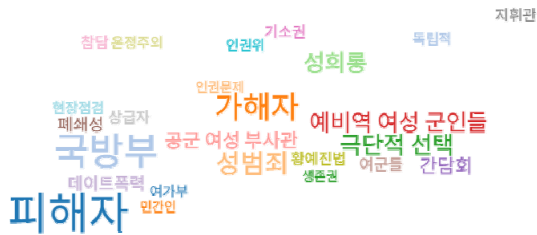
[Fig. 2]에 나타난 기사 내용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피해 대상은 여군 및 하급자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 구분에 상관없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셋째, 피해 유형은 성희롱 및 성추행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넷째, 가해자와 국방부의 대처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Fig. 2] 군 성폭력 기사 키워드

3.2.3 성폭행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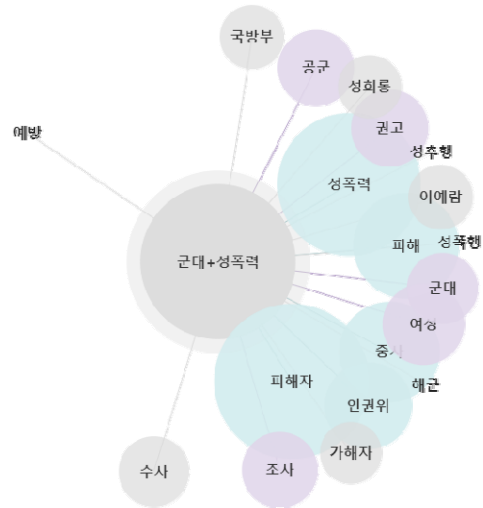
수집된 데이터에서 언급된 단어 크기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기법은 텍스트에서 사용 빈도가 많은 단어를 비례적으로 크게 표시함으로써 비정형 텍스트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시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7].



[Fig. 3] 군 성폭력 기사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연관어 분석결과도 키워드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방부, 가해자, 성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하나 주목할 점은 “극단적 선택”이란 단어가 연관어로 분석됨으로써 군 내부 성범죄 피해의 결과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군대 성범죄”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 1위 ‘피해자’(가중치 21.28, 키워드 빈도수 279), 2위 ‘국방부’(가중치 17.73, 키워드 빈도수 155), 3위 ‘가해자’(가중치 13.27, 키워드 빈도수 125)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성희롱’, ‘예비역 여성 군인들’, ‘간담회’, ‘폐쇄성’, ‘여군들’ 등과 같은 단어가 상위 3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었다. 즉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이 언급될 때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피해자’, ‘국방부’, ‘가해자’, ‘성범죄’, ‘극단적 선택’ 등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핵심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키워드의 구성을 보기 위해 예고 네트워크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노드 간의 연관성은 원의 크기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다[Figure 4].

‘군 성폭력’ 관련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피해자’로 348건 등장하였고, ‘성폭력’ 312건, ‘피해’ 203건, ‘중사’ 188건, ‘인권위’ 148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여성’, ‘권고’, ‘공군’, ‘사건’, ‘조사’ 등과 같은 단어가 상위 3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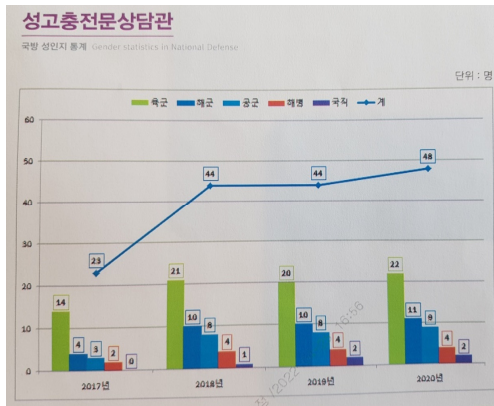
[Fig. 4] 군 성폭력 기사 노드 분석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군대 성폭력 사건이 언급될 때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피해자’, ‘성폭력’, ‘피해’, ‘중사’, ‘인권’ 등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노드 분석을 통해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군대 성폭력 사건의 중심은 피해자이며 최근 화제가 된 중사 사건에 주목하고 있고, 인권위에서 다루는 인권 관련 문제라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 ‘공군, 해군, 군대’라는 연관 키워드의 등장은 국민은 군대 성폭행이 특정 군 소속이 아닌, 군대 전반에 걸친 이슈와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3.2.4 군 성범죄 감성 분석

‘군대, 성범죄’ 감성 분석은 [Fig. 5] 분석표와 같다. ‘군대, 성범죄’ 키워드의 부정 긍정지표를 확인해보면 부정어는 63.7%, 긍정어는 36.3%였다. 부정어의 단어는 거부감 66.7%, 슬픔 19.4%, 두려움 9.0%, 분노 2.8% 순으로 나타났다. 감성 단어 분석 결과 각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감에는 난해하다, 어렵다, 심하다, 부족하다, 심각하다, 혐오하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슬픔에는 억울하다, 울다, 가혹하다, 속상하다 등의 단어가, 그리고 두려움은 불안하다, 두렵다, 주의하다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있다[2]. 특히 피해자가 강한 거부감과 슬픔, 두려움의 감정을 호소하는 분석 결과를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군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군의 성고충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는 2014년 최초 도입되어 2020년 기준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7년에 비해 두 배가량 인력이 충원되었으나 확대된 여군 인력과 증가한 상담 소요 대비 담당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Fig. 7].



[Fig. 7] 2021 성고충 전문상담관 추이

더불어 연관어 검색결과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극단적 선택”이란 단어가 주요 연관어로 등장함으로써 군 내부 성범죄 피해의 결과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하는 가운데 피해 예방, 사건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언론 기사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군 내부에 존재하는 성폭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군 조직문화가 집단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폐쇄주의적 특성으로 폭력이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3]. 폐쇄적인 구조로 피해자에게 집중되는 관심, 소극적인 관련 당국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 부족한 피해자 지원들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성범죄가 군대 내의 사각

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가해자 위주의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이다. 군은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 개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증가하는 군 성범죄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와 범죄 사실 중심의 사건 조사와 보도자료 작성을 통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민간 인력으로 구성된 사법기관 신설이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진술분석관 등의 전문 인력과 민간 법조인으로 구성된 군 성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현역 수사관과 법무 장교로 구성된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 차원에서 군 외부의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신고와 동시에 부대 간부에게 보고가 진행되는 군의 시스템 상,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신고자의 비밀보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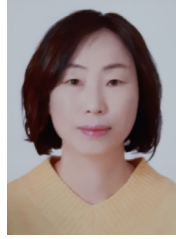
셋째, 피해자 지원인력의 확대이다. 철저한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군에서 활동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 담당관은 수요 대상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전 예방 교육, 상담, 피해자 보고 및 지원, 신고 절차 지원 등 한 인력이 관련 업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상담 소요에 대응하고, 성폭력 징후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군 성범죄 키워드를 중심으로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나, 관점에 따라 키워드 설정과 결과 해석을 위한 범주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 피해자 심리 연구, 빅 데이터 연구의 진술 분석 적용 사례 등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구원근, 박민진, 박현호, “육군내 일탈행위 인식과 그 대책으로서의 CPTED 적용”, 한국경찰연구, 20(1), 3-34, 2021..
- [2] 김선녀, “위계에 의한 군 성폭력의 문제점-언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8(1), 85-92, 2022.
- [3] 민진,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8(3), 91-121, 2011.
- [4] 윤해성, 전현욱, 양천수, 김봉수, 김기범,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31, 2014.
- [5] 정용찬, 빅데이터. Communication Books, 2013.
- [6] 최성, 우성구, “빅데이터의 정의, 활용 및 동향”, 정보처리학회지, 17(2), 2012.
- [7] 최중산,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인식 분석”, 예술 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 427-437, 2017.
- [8] 탁희성, 박준희, 정진성, 윤지원,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I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03, 2015.
- [9] Gantz, J., & Reinsel, D.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1142(2011), 1-12, 2011.
- [10] Leitner, M. (Ed.). Crime modeling and mapping using geospatial technologies (Vol. 8).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3.
- [11] Manyika, J., Chui, M., Brown, B., Bughin, J., Dobbs, R., Roxburgh, C., & Hung Byers, A.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 [12] Zaman, I. White Paper: Big Data and UK Policing, 2013.

김 영 란 (Kim, Young-Ran)



- 2020년 4월~현재: 서비스탑(SKT 서비스센터) 심리상담사
- 2022년 3월~2023년 2월: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 (박사수료)
- 2017년 3월~2020년 2월: 전북대학교 교육심리 전공 (박사수료)
- 관심분야: 심리치료, 기업 상담, 군 상담
- E-Mail: barcounter1234@naver.com

이 민 선 (Lee, Min-Sun)



- 2022년 7월~현재: 해병대 성고충 예방대응센터 센터장
- 2012년 3월~2014년 2월: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 (상담학석사)
- 2019년 3월~2021년 2월: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 (박사수료)
- 관심분야: 범죄심리, 군성폭력, 소년 범죄
- E-Mail: penta71@naver.com

송 현 (Song, Hyun)



- 2018년 3월~현재: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
- 2018년 8월~2021년 12월: 한일장신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소장
- 2012년 3월~2017년 2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박사)
- 관심분야: 심리치료, 외상 후 성장
- E-Mail: hyun@hanil.ac.kr